

건축이라는 예술 (I)

■
Theme Essay
Truth in Architural
by An, Byung-Ui

빈 다방에 들어서면 누구든 앉을만한 곳을 찾아 잠시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마땅한 자리를 잡는다. 이런 자리는 오래 벽을 한쪽에 낀 구석진 자리거나 큼직한 잎이 날개를 펴고 있는 보기좋은 「몬스테」 밑이라든가, 큰 어항이 놓여 있는 옆자리 따위이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 다방의 한복판, 소란스러운 곳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레스토랑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식당의 모든 좌석이 저마다 특색있도록 꾸민다. 손님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백크들은 덕수궁 담을 끼고 돌아가는 호젓한 길을 흔히 찾는다. 이렇듯 우리들은 아늑한 곳, 즐거운 곳, 호젓한 곳을 좋아하는데 바로 이런 곳이 人間的인 空間이기 때문이다. 건축이란 바로 이런 공간을 말한다.

이밖에도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많다. 아름다운 것, 안식을 주는 것, 이상한 것, 멋있는 것, 최상의 것, 감동을 주는 것, 에레гант한 것, 신비스러운 것, 장관, 움직이는 것, 드라마틱한 것, 따위. 이런 것들이 건축이다.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분류하기를 좋아하지만 건축이란 무엇이나, 건물이나 구조물과 건축을 판가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정의내리려면 잠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것 하기에는 부족하고 차라리 멋있는 것이 좀 가깝겠으나 시원치 않고 인간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물하면 범위가 넓어 그렇듯 하지만 예들들어 아늑한 주택은 좋은 건축이지만 별로 큰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다. 왕창 범위를 넓혀 인간적인 것 하면 한정이 없는 것 같아 定義도 뵈도 아니다.

건축이란 무엇이나 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쓰는 것이 이 원고의 목적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고 차라리 교수들에게 물어보든가 學士論文이나 살펴 보는 것이 나올 듯 하다.

세월에 따라 건축의 개념은 많이 달라져 왔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 굳이 정의짓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건축디자인 하는데 이런 정의는 조금도 소용되지 않는다. 예술이란 학설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과 가장 가까운 예술을 든다면 조각이겠다. 조각은 작가의 의지가 形態로 빚어진 것이고 건축은 그 기능이 작가의 의지를 통해 형태로 빚어진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건축은 기능이라는 형태도 없는 구축이 강한 요소를 건축가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기능이라는 주어진 숙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는 작업부터 건축디자인은 시작된다. 화가는 물체나 경치를 그릴 때 우선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표현한다.

건축디자인도 이와 같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건축은 조각처럼 조형의 예술이며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은 모두 멋이 있어 우리들은 성급하게도 그 기능의 본질을 파악할 생각을 제쳐 놓고 멋있는 조형부터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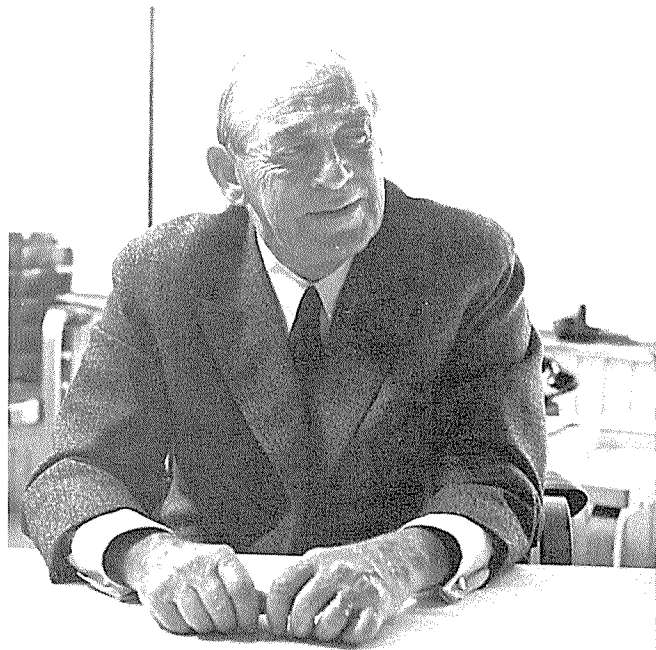
건축이란 무엇이나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쓰는 것이 이 원고의 목적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고 차라리 교수들에게 물어보든가 學士論文이나 살펴보는 것이 나올 듯하다.

세월에 따라 건축의 개념은 많이 달라져 왔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 굳이 정의짓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건축디자인하는데 이런 정의는 조금도 소용되지 않는다.

自己執着이 강한 작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로 평면의 기능을 몰아부치고 顯示慾이 강한 작가는 남들이 놀랄만한 기발한 조형을 찾아서 기능을 그 속에 쑤서 넣는다.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대상의 본질을 느끼고 꿰뚫어 보는 화가의 자세를 우리들 건축가는 배워야 한다. 새로운 조형이 해답이 아니다. 機能의 本質을 찾아 이것을 조화있게 꾸밀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좋은 건축작품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꾸며진 조형은 기능의 虐殺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의 아름다움이란 어떤 틀에 맞추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참다운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조개나 소라의 형태는 더없이 아름답지만, 그것은 그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 붐비지 않는 넓직한 공간에 아름답게 꾸며진 진열장과 조명, 더러 작은 연못과 싱그러운 화초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휴식 스페이스, 이러한 백화점이라면 쇼핑하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백화점이란 즉 쇼핑하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설레이는 기쁨이다. 더욱이 항공편일 때는. 맞이하는 기쁨. 떠나 보내는 아쉬움. 재회를 기약하면서 나누는 한잔의 술. 오손도손 나누는 그칠 줄 모르는 대화. 이러한 분위기를 담으려면 어떠한 공간이 어울릴까. 이것이 공항의 본질이다. 이로 사리넨은 이 해답을 케네디 공항에서 보여 주었다. 박쥐가 날개를 펼친 듯한 조형으로 감싸인 공간이다. 직선이라고는 비스듬히 서 있는 거대한 유리창 뿐, 내부 공간은 철저히 곡선과 곡면으로 마감 재료 또한 그지없이 단순하고 소박하다.

진찰, 입원, 관리. 이것이 병원의 3대 기능이다. 병원은 이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족하지는 않다. 병원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 환자로서의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도 그렇거니와 병원의 깨끗하고 차가운 분위기, 약 냄새도 싫다. 환자의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고 불안한 마음을 되찾아 주는 것. 이것 또한 병원이라는 기능이 안고 있는 본질이다. 어느 작가의 작품인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그는 대기실, 진료실 등에 햇빛과 푸르름이 가득한 中庭을 군데군데 배치하여 환자에게 위안을 준다. 매우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란 말에서 생각나는 것은 「알발·알토」이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핀랜드」의 작가의 어느 건물 主玄關에는 손잡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에 각각 따로 붙어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높은 곳은 어른들 用이고, 낮은 곳은 어린이들을 위한 손잡이다. 「알발·알토」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 소박한 재료의 쓰임새, 친절한 디테일, 결코 웅장하지 않고, 척하지 않는 조형, 그러면서 억매이지 않는 평면구성이다. 아마도 가장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작가가 아닐까. 호텔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다. 여행을 떠나 외지에 묶으면서도 가정에 있는 듯한 아늑함과 보살핌이 요구되면서 한편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화려함과 즐거운 분위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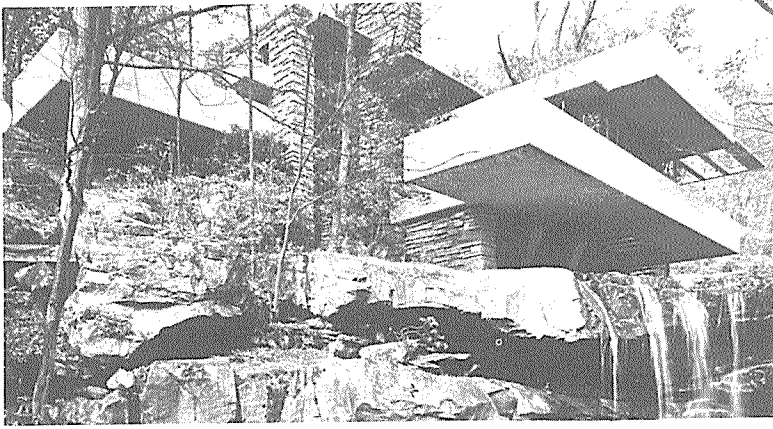
Alvar Aalto

호텔의 본질이다. 손님이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그 호텔은 실패작이다. 호텔에 묵고 있는 동안 날마다의 생활이 곧 작은 드라마의 연출인 그러한 공간이어야 한다. 대개의 건축은 그 기능에 따라 그 조형이 결정되므로 오피스 빌딩들은 모두 엇비슷하고 백화점끼리 또한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 별로 움직이지 않는 見類는 서로 비슷하고, 빨리 달리는 魚族들은 자기들끼리 비슷하고, 하늘을 날으는 鳥類 또한 그렇고, 숲 속에 사는 네발짐승끼리 비슷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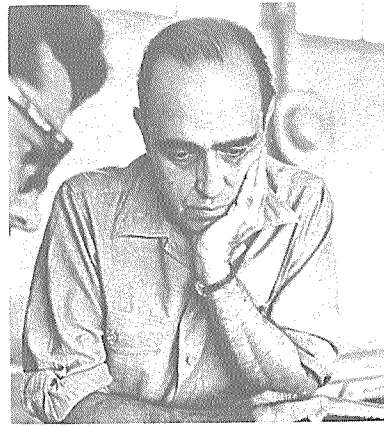
그러나 住宅은? 주택만큼 모양이 서로 다른 건축도 없다. 대개의 건축이 여러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그 최소공배수를 만족시키면 되지만 주택은 그 가족만을 위한 것이고, 또 대지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일까. 그 중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주택 몇개를 살펴보자.

「미스·환델·로」의 황스와즈邸는 마치 숲속에 놓여진 큼직한 유리상자 같다. 모든 조잡한 재료와 디테일을 버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로 빛어진 공간이다. 둘러싼 우거진 숲이 곧 벽으로 자연 속에 주거공간을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주거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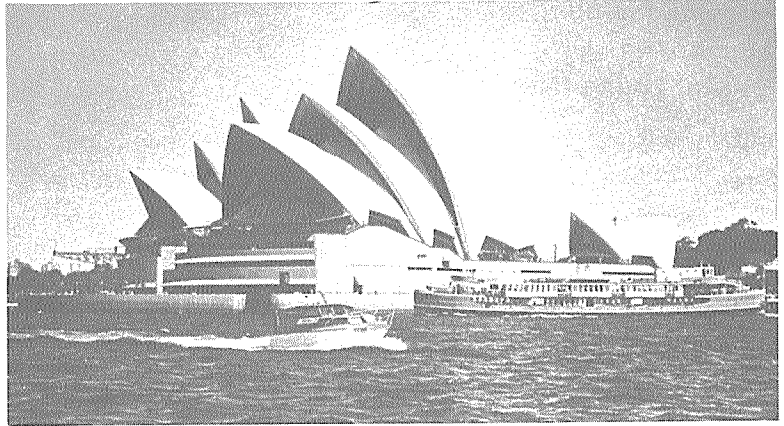
브라질에 있는 「오스카·니마이어」의 자택은 바다와 숲을 잇는 접점이다. 바다를 보고 싶고, 숲도 버릴 수 없어 양쪽을 우리로 감싸고 아름다운 곡선의 슬라브 지붕을 덮은 매우 자유스러운 흐르는 듯한 평면구성이다.



▲라이트의 「낙수장」



▲오스카니마요



웃픈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한편 「라이트」의 落水莊은 흐르는 계곡의 물과 숲속에 어울리는 매우 다이내믹한 조형으로 자연속에 주거공간을 강하게 한정짓는다. 세 건축가 모두 자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공통된 것은 뚜렷한 개성이며, 바로 건축이다. 애당초 대개의 건축은 땅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놓여지는 주위환경과 끊어질 수 없는 연관을 맺는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상대로 생각해 왔으나 동양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자연의 일부이며, 그 속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 또한 자연속에 다소곳하게 자리 잡았다. 많은 고찰들이 그 자태를 뽐내지 않으며 산 속에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놓여 있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웃픈」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였다. 그의 스케치에 의하면 바다에 떠 있는 하얀 돛을 단 요트의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이야기이다.

오페라 하우스의 기능으로는 네모진 건물이든 둥이든 피라밋이든 안될 것은 조금도 없다. 단지 항구의 한 모퉁이라는 환경조건에 요트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 이 건축을 불후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여기까지 쓴 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건축이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기능만이 아니라 그 기능에 선행되는 그 본질,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꿰뚫어 보고 이것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결과 빛어진 조형이 참다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다.

또한 건축이 놓여지는 환경에 대한 작가의 이미지 사고가 건축을 결정짓는 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 원고를 쓰는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건축이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요새에 더러 눈에 띄는 아마 「벤츄리」의 영향처럼 보이는 재미있는 에레베이션(조형이 아니라 단지 에레베이션)을 가진 건물들이 떠 올랐다. 재미있다고 나는 느낀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보는 동안만 즐거울뿐 극장을 나오자마자 뇌리에서 사라져 버린 오락영화, 한 두어시간 읽을 동안 재미있고 책뚜껑을 덮으면 아무런 느낌도 안남은 연애소설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들은 예술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할만큼 오만불손하지는 않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므로 그런대로 존재가치가 있다. 어느 것이 참다운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다.

다만 「벤츄리」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이 있다(얼마나 오래 갈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수십년 전에 보았지만 아직도 생각나는 영화, 몇번씩이나 되풀이해 읽었던 不朽의 문학작품, 나도 모르게 도취되는 선률, 이런 것들과 견줄 수 있는 건축이야말로 진짜가 아닐까. 건축이란 무엇인가. 나에게서 힘에 겨운 과제였지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도시, 예술이란 편견의 소산이다 라고 자위하면서 다음에 계속해서 건축의 본질을 찾아 어프로우치 해 나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 즉 이성에 의한 길과 감성에 의한 길을 펼쳐보기로 한다.